



무주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환경정리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흥교)에서는 지난 18일과 26일 무주군 내 경로당 4곳을 방문하여 경로당 환경정리를 진행했다. 경로당환경정리사업은 경로당연계프로그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경로당 중 환경이 취약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청소, 정리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경로당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경로당 환경정리는 대한적십자사 무주지부협의회 회원들과 사회복지실습생도 동참하여 힘을 보태었다. 대한적십자사 무주지부협의회 박순임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환경정리에 참여 하였다.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 대한적십자사 무주지부협의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전달과 반찬을 만들어 직접 배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더욱 따뜻하게 섬겨 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이흥교 관장은 "이번 환경정리를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문화여가시설로써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경찰서, 잼버리 영외활동지 범죄취약요소 점검

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영외활동지로 선정된 벽골제, 금산사, 스마트관측신발리에 대해 범죄예방진단활동을 개시하여 범죄취약요소를 점검한다. 범죄예방진단팀(CPO)는 영외활동지 총 3곳에 대하여 CCTV,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범죄취약요소에 대해 진단을 실시한 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관찰 파출소와 연계하여 탄력순찰 노선을 지정하여 주기적이며 체계적인 순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영록 김제경찰서장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점검 및 취약요인 발견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김제경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산림민원 해결사 '진안 숲가꾸기 패트롤팀'

올해 200여건 민원 해결... 집중호우 피해 위험목 신속 제거 등 역량 발휘

진안군 숲가꾸기 패트롤팀이 '산림계의 119'로 불리며 주택, 농경지 등 생활권 수목에 의한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6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숲가꾸기 패트롤팀은 고소작업차·굴삭기 등 각종 산림관련 장비를 이용해 주택가 도복위험목, 농경지, 지장목, 도로변 고사목 제거 등 올해 200여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최근에는 안전면 강풍피해,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신속하게 위험목을 제거하여 산림민원 해결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산림재해 및 생활권 산림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숲가꾸기 패트롤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수목 제거 대



산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가능 여부 판단 후 처리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심폐소생술 중요성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27일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최초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심장이 멎은 후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의 손상이 시작돼 심장박동이 재개되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으며 10분이 넘어가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골든타임인 4분 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장수소방서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 시 최초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과정을 안내한다. 우선 심정지 환자 발견할 경우 의식 확인을 시작으로 △119신고 및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양손을 모아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119구급대 도착 시까지 심폐소생술 유지가 필요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익산시·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랑의 배식봉사 나서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성자)와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희) 25명은 27일 망성면 피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 나섰다. 회원들은 군 장병, 자원봉사자, 피해 주민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발차 운영에 적극 힘을 더했다. 특히 이번 봉사는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간의 상호 협력에 따른 지원으로 익산시 수해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에 먼저 나서주시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도움이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및 피해 주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의 개별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 소외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봉



사활동 및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여성 지도자로서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신속히 치료받지 못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중 가장 심각한 열사병은 치료가 늦으면 장기의

손상으로 체내 간부전,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남을 수 있다. 대개 체온이 높고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며 중심이 안 잡히거나 쓰러지고 극심한 어지러움이 동반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치료받아야 한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구급차에 열음조끼,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전해질 용액 등 9종의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추어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연막소독 시 119에 신고해요"

무주소방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문자 또는 서면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전 신고없이 연막소독·쓰레기소각 등 화재 오인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5조에 따라 과태료(20만원 이하) 부과될 수 있다.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 등의 사전신고는 국번없이 119 또는 무주소방서 현장대응단(063-780-3252)로 전화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지하철도 침수 대비 훈련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26일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조산 지하철도에서 풍수해 대응 강화를 위해 관 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로 도로시설 침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초동대응 조치로 초기혼란을 방지하고 차량통제 및 우회도로 소통 등 국민불편 최소화하기 시행되었으며,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간 긴급협조체계 점검과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체제 조기 복원에 중점을 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6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